

권고사직 점검표

면담 전에 기록부터 정리하고, 사직서에 들어갈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.

1. 이 알바, 지금 어떤 상태인가

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펴놓고 적어요.
3개월과 계약 만료일이 선택지를 가릅니다.

근무 기간 (첫 출근일 기준, 계약 기간 아님)	
첫 출근일	월 일
오늘까지 일한 기간	개월
3개월을 넘겼는지	예 / 아니오
계약과 임금	
근로계약 만료일	월 일
1일 소정근로시간 × 시급	원
30일분 통상임금	원

마지막 칸이 지금 당장 내보낼 때 나갈 수 있는 돈이에요. 3개월을 안 넘겼다면 이 금액은 안 나가고, 계약 만료일이 가깝다면 기간 종료로 끝내는 쪽이 제일 뒤탈이 적어요.

2. 면담 전에 확인할 항목

기록이 없으면 면담에서 말이 감정으로 흘러요.

사실만 남겨두고 시작해요.

□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자로 개선을 요청했는지 확인해요

지각이나 시재 오차, 근무 중 취침 같은 일을 날짜와 함께 남겨두면 그대로 근거가 돼요. 구두 경고만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.

□ 손님 없는 시간에 면담 자리를 잡아요

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하면 모욕감을 줬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. 폭언이나 고성으로 그 자체로 강요 정황이 돼요.

□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내지 않아요

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. 즉석에서 받은 서명은 나중에 강요였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쉬워요.

□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요

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잡혀 지원이 끊기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. 종류마다 조건이 다르니 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.

3. 사직서에 넣을 문구

제목이 아니라 이 문장이 합의였다는 증거가 돼요.

빈칸은 알바가 직접 채우게 해요.

권고사직서

본인은 회사의 사직 권고를 충분히 생각한 뒤 자발적으로 받아들여, 상호 합의 하에

_____ 월 _____ 일부로 사직합니다.

작성일 _____ 성명 _____ (자필 서명)

□ 날짜와 이름을 알바가 직접 쓰게 해요

점주가 미리 채워둔 서류에 서명만 받으면 합의로 보기 어려워져요.

□ 한 부씩 나눠 보관해요

점주와 알바가 같은 서류를 각각 갖고 있어야 나중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.

□ 거절하면 다른 길을 봐요

계약 만료가 가까우면 30일 전 갱신 거절 통보로, 아니면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으로 정리해요.

💡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하세요.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어주면 부정수급 공모가 돼서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,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돼요.

SAAI STORE LETTER

© 2026 SAAI

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. 개별 매장의 법률·세무·노무 자문이 아니므로 매장 규모·근무 형태·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, 본 자료를 활용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점주 본인에게 있어요. 중요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(공인노무사·세무사·변호사 등)와 상의하세요.